

뉴욕직딩이 알려주는 **핵인싸** 비즈니스영어

미국인이 이것 못알아 듣는다고??

내 영어 **발음**

대체

뭐가 문제일까?

미국인이
“오↓웁↑지↓ 캔-디-”를
못알아 듣는 이유



Photo by Víctor Daniel Giraldo on Unsplash

사건 개요



석사로 미국을 온 희진(가명)이가 학교를 마친 후 처음으로 미국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옆자리 동료 마이클(가명)에게 평소 즐겨 먹는 오렌지맛 사탕을 나눠줬다.

한국어로 쓰여진 낯선 사탕봉지를 보고 마이클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희진이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한다.

“잇츠 오렌지 캔디~”

“캔...디...?” “잇츠 캔!디!”



Photo by Víctor Daniel Giraldo on Unsplash

사건 개요 (Cont'd)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마이클은 오렌지색 사탕봉지를 손에 쥐고서도 희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희진이는 생각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캔디도 못알아들을 일인가...?!)

...무엇이 잘못된 걸까?

2008년에 이경숙이라는 인수위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이런 희대의 발언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R을 힘껏 굴려 오렌지를 오'퀸'지 또는 오'퀸'지로 발음했을 때

열에 아홉은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Arrange (v. 마련하다, 주선하다, 준비하다, 정리하다)

/어'퀸인'지/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

그래서 Orange를 어떻게 발음하라는 거냐고?

R발음 못한다고 혀 때리지 말고

강세에만 집중해보자 (혀가 입천장에 닿아도 상관 없다).

Orange

/‘오’린지/



“Can I have an orange juice, please?”

/캐'나-이' 해애 V언 '오'린저 '쥬'스, 플'리이'스?/



참고: 원래 쥬스는 셀 수 없는 명사여서 “a glass of orange juice” 등으로 표현해야 문법적으로 정확하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점에서 주문할 땐 그냥 “an orange juice”라고 쓰는 편이다. 커피같은 경우에도 “a cup of coffee” 처럼 너무 정확한 표현 보다는 그냥 “a coffee”라고 해도 무방하다. 또한 문법적으로는 ‘May I...’ 혹은 ‘Could I...’를 쓰는것이 맞지만 보통 구어적 표현으로 ‘Can I...’라고 하기도 한다 (colloquialism).

여기서 잠깐

직딩영어 발음기호 읽는 방법:


- ▶ ‘작은따옴표’ 안에 들어간 음절에 강세를 준다.
- ▶ 밑줄 그어진 음절들은 한 음절처럼 붙혀 읽는다.
- ▶ 연음하지 않는다.
- ▶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엔 최대한 모음소리를 죽이되 분명히 발음한다.

>> F, V, Z을 제외하고는 한글만 사용하여 최대한 (미국식) 영어 발음에 가깝게 소리나도록 표기해보았습니다. 역시 한글은 위대해...

직딩영어 발음기호 읽는 방법:

▶ ‘작은따옴표’ 안에 들어간 음절에 강세를 준다.

• important: /임‘폴’턴트/ 또는 /임‘폴’은트/ 

• New York: /누‘웁’(크)/ 

▶ 밑줄 그어진 음절들은 한 음절처럼 붙혀 읽는다.


▶ 연음하지 않는다.


▶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엔 최대한 모음소리를 죽이되 분명히 발음한다.

직딩영어 발음기호 읽는 방법:

▶ ‘작은따옴표’ 안에 들어간 음절에 강세를 준다.

▶ 밑줄 그어진 음절들은 한 음절처럼 붙혀 읽는다.

• I: /아이/ (‘아이’가 아니라 ‘아이’) 

• victory: /‘V익’틀위/ 

▶ 연음하지 않는다.


▶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엔 최대한 모음소리를 죽이되 분명히 발음한다.


직딩영어 발음기호 읽는 방법:

▶ ‘작은따옴표’ 안에 들어간 음절에 강세를 준다.

▶ 밑줄 그어진 음절들은 한 음절처럼 붙혀 읽는다.



▶ 연음하지 않는다.

• Manhattan: /맨’햐’은/ 

• victory: /’V익’톨위/ 

▶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엔 최대한 모음소리를 죽이되 분명히 발음한다.

직딩영어 발음기호 읽는 방법:

- ▶ ‘작은따옴표’ 안에 들어간 음절에 강세를 준다.
 - ▶ 밑줄 그어진 음절들은 한 음절처럼 붙혀 읽는다.
 - ▶ 연음하지 않는다.
 - ▶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엔 최대한 모음소리를 죽이되 분명히 발음한다.
- ice: /아이쓰/ (“아이스”가 아니라 “아이쓰”) 
 - watched: /‘와아-’취드/ 

그럼 '캔디'는?

Candy

/‘캐-앤’디/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ndy?”

“Would” 발음에 조심하자.
“우(드)”가 아니다.
한국어로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자면,

/워우'쥬' 라잇투 '해-애'v썸 '캐-앤'디?/



참고: 미국에서 Candy는 사실 사탕(hard candy)뿐만 아니라 모든 당류의 굳것질거리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젤리도 미국에서는 캔디에 속한다 (jelly candy 또는 gummy candy). 영어로 그냥 젤리라고 하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과일향 스프레드를 뜻한다 (우리나라 과일잼 보다는 저급으로 실제 과립이 없고 과일향에 설탕으로만 만든, 투명하고 푸딩같은 질감의 스프레드). 미국 학생들이 점심으로 주로 먹는 PB&J 샌드위치가 Peanut Butter & Jelly의 줄임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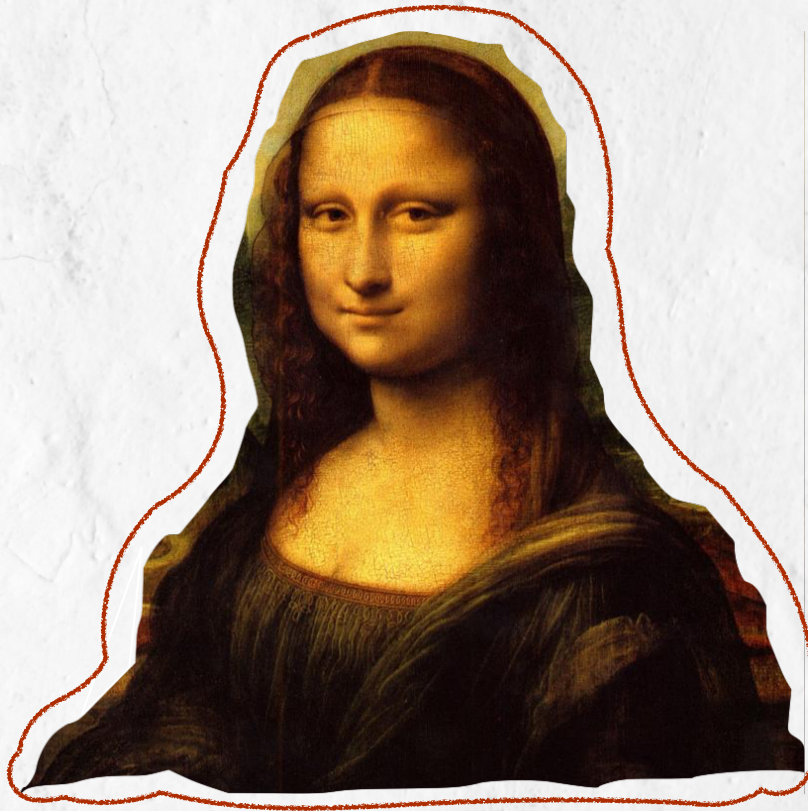
“It's an orange candy from Korea.”

/‘잇’ 춏언 ‘오’린저 ‘캐-앤’디 f으롬 코‘뤼’아/



사실 우리는 영어의 강세에 대한 중요성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모나리자 게임 (a.k.a. 절대음감 게임):



▶ 모!나리자

▶ 모나!리자

▶ 모나리!자

▶ 모나리자!

그래서 영어로는 어느 발음이 맞는건지 아는 사람?

(사실 다 트림)

Mona Lisa

/‘모’나 ‘리’사/



“Mona Lisa is in the Louvre.”

/‘모’나 ‘리’사 이z인 더 ‘루-우’v/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참고: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문장을 영어로 어렵게 표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하면 된다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표현은 주로 매우 간단하다). 루브르 앞에는 항상 ‘the’를 붙인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 안녕.

다음시간엔 회사에서 실제로 쓰일 만한 표현들을 알아보자.

부록

실지연습을 위한

진짜 이을만한

실생활

Dialogue

상황설정 (The Premise)

Pam과 **Jim**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둘은 비슷한 나이대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살짝 호감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어색한 사이이다. 같은 팀도 아니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없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도 않거니와 둘이 나눌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별로 없다. 회사 탕비실에서 군것질을 하던 Jim이 Pam과 마주쳤고 둘은 흔한 small talk을 나눈다.

🎧 Dialogue 🎧

Jim: Hey, how is it going, Pam? Would you like some jelly beans?

Pam: Oh, hi Jim! I'm good, thank you though.

Jim: I think I haven't seen you for a while. What's new?

Pam: Yeah I just came back from my summer vacation.

Jim: Oh yeah? How was it? Where did you go?

(밤포켓과 나의 어색연기 주의!)



Dialogue

Pam: It was great! I went to Europe; Spain and France. I know it sounds funny but I had so much fresh-squeezed **orange** juice while I was there. I literally drank it like water everyday and now I feel like I have to cut down on sugar a little bit, you know.

Jim: I hear you. I bet it was at least a better kind of sugar than what's in these **candies**. Actually, *I* should stay away from these; I've had too much already. So, what else did you do other than over consuming fresh-squeezed **orange** juice?



Dialogue

Pam: Haha, I visited a few cities in Spain just to eat good food, lie down on the beaches, read books, and all that, which was awesome, and, I went to Paris. I'd never been to Paris before and always wanted to go to the Louvre to see **Mona Lisa** since I was a kid.

Jim: Oh yeah? So did you get to see the **Mona Lisa**?

Pam: Yeah, I did. Finally!

Jim: How did you like it?



Dialogue

Pam: It was mesmerizing, but also surprisingly small, much small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Did you know that? It's only like this big so it's hard to see if you don't get close enough. I had to fight the crowd to get near it.

Jim: Wow I didn't know that. That's interesting. I've never been to Paris.

Pam: Well, you should. It was still worth it. And there's so much more than the Louvre in Paris, you know.



Dialogue

Jim: I know. It's definitely on my list. I'll let you know when I'm actually going, if you don't mind sharing all the tips and recommendations.

Pam: Oh yes, for sure. Just let me know when it happens and I'll tell you everything.

Jim: Awesome. I'll keep you posted. Sorry, I gotta head back to my desk but um... good talk!

Pam: Oh no worries, I'll let you go. See you around!

Jim: See ya.



대화분석

Dialogue

Jim: Hey, how is it going, Pam? Would you like some jelly beans?

헤이 팸, 뭐해? 젤리 빈 먹을래? (미국에서도 간식같은건 서로 권한다.)

Pam: Oh, hi Jim! I'm good, thank you though.

오, 짐 안녕! 난 괜찮아, 고마워 그래도.

Jim: I think I haven't seen you for a while. What's new?

한동안 안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냈어? (이걸 알 정도면 - 이성으로든 아니든 - 관심이 있다는 소리)

Pam: Yeah I just came back from my summer vacation.

어 나 여름휴가 갔다가 이제 막 (회사에) 돌아왔어.

Jim: Oh yeah? How was it? Where did you go?

아 진짜? 어땠어? 어디 갔다왔는데?

*How is it going?: "What's up?"과 같은 의미로 와썹만큼 자주 쓰임. 눈 마주치면 바로 그냥 ㄱ ㄱ

*I'm good: 정말 유용한 표현. 한국말처럼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쓰인다. "난 괜찮아."

*though: 역시 정말 유용한 표현. 문장 끝에 쓰이면 "그래도" 라는 의미로 쓰인다.

*What's new?: "What's up?"과 같은 표현. 같은 의미.



Dialogue

Pam: It was great! I went to Europe; Spain and France. I know it sounds funny but I had so much fresh-squeezed **orange** juice while I was there. I **literally** drank it like water everyday and now I feel like I have to cut down on sugar a little bit, **you know**.

엄청 좋았어! 유럽 갔다 왔거든, 스페인이랑 프랑스. 이런말 하면 웃기겠지만 거기 있는 동안 갓 짠 오렌지 주스를 너무 많이 마셨어. 진짜 거짓말 안하고 물처럼 매일 마셨거든 그래서 이제 당분 섭취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Jim: **I hear you**. I bet it was at least a better kind of sugar than what's in these **candies**. Actually, I should stay away from these; I've had too much already. So, what else did you do other than over consuming fresh-squeezed **orange** juice?

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래도 이 캔디들 보다는 나은 당류였을거 아냐. 사실 내가 애네들을 멀리 해야겠다. 벌써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생오렌지 주스 과다섭취 한 것 빼고 또 뭐했어? (“over consumption” 같은 문어체를 이용한 유머 시전)

***literally**: 직역하자면 “문자 그대로”인데 평소 “진짜 뺨안치고”같은 뉘앙스로 강조할 때 자주 쓰인다.

***...,you know.**: “너도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뜻으로 문장 끝에 잘 쓰임.

***I hear you**: 핵 유용한 표현. “니가 무슨 말 하는지 들려”, 즉 “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라는 의미로 상대방 말에 맞장구 쳐줄 때 쓰기 좋은 호응구다.



Dialogue

Pam: Haha, I visited a few cities in Spain just to eat good food, lie down on the beaches, read books, and all that, which was awesome, and, I went to Paris. **I'd never been** to Paris before and always wanted to go to Louvre to see **Mona Lisa** since I was a kid.

하.하.(썰렁한 유머엔 이렇게 받아칠 수 있음 - 친한 사이엔) 스페인에 도시 몇군데 갔었어 그냥 좋은 음식 먹고, 해변에 누워있고, 책 읽고, 뭐 그럴려고. 너무 좋았지. 그리고 파리에 갔어. 파리는 한번도 가본적 없었는데 어렸을때 부터 항상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보고싶었거든.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역시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보임)

Jim: Oh yeah? So did you **get to** see the **Mona Lisa**?

아 진짜? 그래서 모나리자 봤어?

Pam: Yeah, I did. Finally!

어, 봤어. 드디어!

Jim: **How did you like it?**

어땠어?

*I'd(=I had) never been: 평소 잘 쓰일 일이 없는 대과거가 이럴때 쓰인다. 여기서 대과거를 씬으로써 이제는 가봤다는 얘기.

*get to ~: 정확히 말하면 “~을 하게 되다”와 같은 뉘앙스의 표현이다. 그냥 “봤어?”라고 묻는 것과는 그냥 뉘앙스의 차이.

*How did you like it?: How가 들어가지만 종합적으로 “어땠어?”라는 뜻이다. 통째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



Dialogue

Pam: It was **mesmerizing**, but also surprisingly small, much small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Did you know that? It's only like this big so it's hard to see if **you** don't get close enough. I had to fight the crowd to get near it.

아주 넓이 나갈정도였어. 근데 또 놀랄정도로 작았어, 생각보다 훨씬. 너도 알았어? 겨우 요정도 크기여서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 가까이 가려고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야 했어.

Jim: Wow I didn't know that. That's interesting. I've never been to Paris.

와 그런지는 나도 몰랐네. 흥미로운 사실이구나. 나는 파리에 한 번도 안가봐서. (interesting은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쓰기 좋은 리액션. 할 말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징후일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님)

Pam: Well, you should. It was still **worth it**. And there's so much more than the Louvre in Paris, **you know**.

그럼 꼭 가봐. 진짜 가볼만 해.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파리에 루브르 말고도 할 게 엄청 많아.

*mesmerizing: “사로 잡히다” 또는 “넋을 놓다” 같은 고급 표현. 그냥 “좋다” 이상의 극찬을 하고 싶을때 알아두면 좋다.

*you: 여기서 you는 상대방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지칭한다. 일반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인다.

*worth it: 마치 형용사 처럼 “가치가 있는”이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역시 자주 쓰임.

*..., you know.: 억양에 따라서 이렇게 끝을 내리면 그냥 호응을 유도하거나 “아 왜 그 있잖아”와 같이 별 의미는 없지만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쓰인다. 혹은 그냥 입버릇.



Dialogue

Jim: I know. It's definitely on my list. I'll let you know when I'm actually going, if you don't mind sharing the tips and recommendations.

알지. 다음 여행 후보 리스트에 있는 건 확실해. 진짜 가게 되면 말해줄게, 팁이나 추천 장소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 (이후를 기약하는 내용으로 슬슬 대화를 끝내려는 의도 일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런건 아님)

Pam: Oh yes, for sure. Just let me know when it happens and I'll tell you everything.

어, 당연하지. 그때 되면 말해 내가 다 알려줄게. (새로운 화두를 추가하지 않고 역시 미래를 얘기함으로써 대화를 정리 하는데 암묵적으로 동의 했다고 볼 수 있다.)

Jim: **Awesome.** I'll keep you posted. Sorry, I gotta head back to my desk **but um...** good talk! 좋았어. 업데이트해 줄게. 미안, 이제 자리에 가봐야 해서... 그래도 좋은 얘기 고마워!

Pam: Oh **no worries,** I'll let you go. See you around!

어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봐. 나중에 보자!

Jim: See ya!

(그래) 또 봐!

***awesome:** 원래는 그냥 좋다는 뜻 보다 더 강한 표현이지만 미국에서는 cool과 동급으로 시도 때도 없이 쓰인다. 특히 할 말이 없을때.

***but um...:** 습관적으로 쓰이는 말로 별 뜻 없는 “그런데 음...” 같은 filler words다.

***No worries:** 명사구임에도 이 자체로 문장처럼 쓰이기도 하는 표현이다.

자매품: **No needs.** (그럴 필요 없어)



To be continued...

그럼 정말 안녕.

이 프레젠테이션은 더보기란 링크에서 PDF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